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53호 1판 (음력 9월 2일)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찬성 "광주 어디든지 30분" | 반대 "달랑 두 칸에 2조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작됐다

23일까지 2500명 설문 조사
250명 시민참여단 26일 구성
11월 8일까지 숙의 거쳐
9·10일 1박2일 투표 최종 결정
찬반 플래카드 내걸고 여론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시민에게 직접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 찬반 양측의 플랑카드가 내걸려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시민에게 직접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도시철도 2호선을 찬성하는 광주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은 신속하게 이를 건설해야 하는 근거를, 반대하는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는 중단해야 하는 논리를 주장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찬반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16년간 반복된 찬반 논쟁이 이번 공론으로 마무리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9일 "시민에게 직접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1차 표본(설문)조사가 전화 062-268-0581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가 광주에 있는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선RDD 방식으로 진행하는 2500명 규모의 1차 표본(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26일까지 구성된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묻는 1차 표본(설문)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과 '찬·반 이유', 그리고 시민참여단과 1박 2일의 숙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묻는다.

시민참여단은 2500명 표본으로 선정된 시민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시민참여단 명단이 정해지면 이들에게 11월 8일까지 찬반 양측의 자료집을 보내고 숙의할 시간을 준 뒤 11월 9일과 10일 1박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투표로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2호선을 신설하면 만성 적자인 도시철도 1호선과 함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2량에 불과한 2호선을 건설하는데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 등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을 보완하며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기반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교통의 편의성을 높여 적자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대 3량이 가능해 버스 1000대 이상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광주 전역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현재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BRT(급행간선버스), 노면전차 등은 광주 교통 여건에 부적합한데다 국비 지원도 제대로 안 돼 시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시작됐다"며 "시민들은 062-268-0581로 걸려 오는 유·무선 전화에 적극 응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함사66주년

부모에… 시설에… 지자체에…
- 3번 버림 받은 고아 소녀들 ▶6면
KIA, 연장 혈투 10-11 역전패
- 롯데에 승차 없이 간신히 5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수산양식 콩레이 피해 '눈덩이'

김·전복·굴 등 293어가
피해 상황 면밀 조사 중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에 따른 피해 집계가 본격화하면서 전남 지역 수산·양식시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태풍 '콩레이' 전남지역 피해는 김·전복·굴·가리비·홍합 등 5종 293어가다.

신안(1만1964)·완도(2591)·진도(2080)·해남(400) 김 양식장에서 김 1만7035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완도에서는 전복 양식장 1700칸이, 고흥에서는 50어가에서 굴 633줄과 가리비 30줄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에서는 어가 2곳에서 홍합 132줄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완도의 전복 가두리양식장과 해남·진도·신안 등지의 김 채묘시설이 상당수 유실된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태풍이 몰고온 비바람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농경지도 큰 피해가 났다. 전남 19개 시·군에서 벼 922ha가 침수되고 750ha가 쓰러지는 등 농경지 피해는 1672ha에 달했다. 특히 영암(392ha)·해남(369ha)·강진(247ha)지역 농경지 피해가 컸다. 또 배 43ha, 사과 11ha 등 과수농가 28곳 54ha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났고, 비닐하우스 47동이 파손됐다.

여수·고흥·강진·완도 등지에서는 도로·하천 5건과 항만시설 47건, 도로시설물 87건 등 공공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분야 등에서 뒤늦게 피해사례가 확인되면서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독식화 현상
3주택 이상 소유자 급증

4년간 4223명 늘어 1만219명 … 증가율 70.43% 전국 최고

광주지역에 최근 4년 동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도(道)지역의 증가폭은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4년간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주의 증가율은 70.43%였다. 2012년 5996명에서 4년 만에 1만219명으로 422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26%에 그쳤다.

광주시 5개 자치구별 3주택 이상 소유주의 비율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동구가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구 2.82% ▲남구 2.68% ▲광산구 2.53% ▲북구 2.34%였다. 전남은 이 기간 중 3주택 이상 소유주가 4.1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만5073명에서 2016년 1만4452명으로 621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중 광주에 이어 3주택 소유 이상 소유자가 증가한 곳은 대구가 60.52%, 제주 47.28%, 울산 45.10%, 서울 44.35%, 세종 43.73% 순이었다.

이처럼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단체 등 '3개 권역'의 3주택 이상 소유자 평균 증가율은 44.85%인 반면, 전남을 비롯한 일반 도(道)지역 증가율 평균은 0.42%에 불과했다.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는 지역별로 '주택 소유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전남과 충북 등 2개 지역도 집을 팔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 동네 부자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 부자 동네로 전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 동네 사람들이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4년간 70%의 경이적인 기록이 나올 수 없다"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성 명 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광주 발전의 계기가 되길..."

저희 광주 · 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하여 찬 · 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역경제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2호선 미건설로 인한 시내버스 증차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2호선을 건설 ·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두배, 세배의 시민 편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은 단일노선으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1호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곽 대규모 주택단지와 대학교를 경유하는 순환선으로, 1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광주 전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도시철도는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시성 · 신속성 · 친환경 · 대량수송이 가능하다. 광주는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대신, 도시철도로 구도심과 외곽주택단지, 버스와 택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도시철도는 교통 약자인 학생과 노인 등 저소득 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단순히 경제성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미래 광주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효과는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물론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광주 · 전남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4개 건설 관련 단체는 금번 공론화 결과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우리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 10. 10

광주 · 전남건설단체연합회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회장	김영구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이권수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이서길	
대한전문건설협회전라남도회	회장	오종순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 · 전남도회	회장	박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광주 · 전남도회	회장	최봉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이길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전라남도회	회장	박영수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현구	
대한건축사협회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한국전기공사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김종철	
한국전기공사협회전라남도회	회장	전연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광주 · 전남도회	회장	손대겸	
한국엔지니어링협회광주 · 전남 · 제주지역지회	회장	박상수	